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용역 1차 공청회 개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1차 공청회(시 · 도 통합 공청회)를 시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10월 8일(월)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지방청 공무원 및 시 · 도 및 시 · 군 · 구 관계 공무원 등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성애 KMI 연구위원의 '어항개발의 비전 및 정책방향의 제안' △박상우 KMI 연구원의 '어촌개발의 비전 및 정책방향의 제안' △성상봉 한국어촌어항협회 ENG 사업단 단장의 '어촌어항개발 규모 검토안 제안' 순이다.

공청회 발표 후, 발표내용의 의문사항 및 참고사항에 대한 토의와 향후 어촌어항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과 총평을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된다.

제21차 해외 어촌어항조사단 파견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9박 10일간 일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제21차 해외선진어촌어항 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시찰에는 해양수산부와 각 시 · 도, 시 · 군의 어촌어항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선 수협과 시공업체, 용역업체 등에서 3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파견되는 제21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은 우리의 어촌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후쿠오카현의 히카다 어항과 오이타현의 벳부어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 유럽으로 이동하여 핀란드의 헬싱키항과 스웨덴의 예테보리어항, 노르웨이의 베르겐어항 등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현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받아 체계적인 시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선진어촌어항 시찰은 선진국의 어촌어항 현황과 시책 및 정비와 환경실태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회 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평어장 주변 수역 해양폐기물 수거 · 처리

해양폐기물 4.79톤 초과 수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42일 동안 연평어장 주변 수역에 대한 해양폐기물을 수거 · 처리하였다.

당초 폐그물, 폐어구 등 402톤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대비 101%, 4.79톤을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연평어장 주변해역의 침체어망을 수거 처리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생산성 제고 및 선박안전을 보장하고, 연평도 주변 방치 폐어망을 처리하여 2차 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였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협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지자체, 해군, 인천해경, 수협, 어업인 등과 업무협조를 꾀하였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2차 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다.